| Volume-6 | Issue-5 | Sep-Oct -2024 |

DOI: https://doi.org/10.36346/sarjhss.2024.v06i05.006

Original Research Article

My Husband! Let's Turn Round (Dolza!) and then, Let's Dance (Tchum-Tcheo-Seo) Together! (Tcheonzamun 017th-032nd)

Hyeonhi Regina Park¹, Sangdeog Augustin Kim^{2*}

¹Canaan Elderly Care Center, (99 Byeonjeong 6 gil, Seo-gu, Daejeon, Republic of Korea)

(Former address) Department of Elderly Care and Welfare, Joongbu University, Kumsan, Republic of Korea

²Jungni Middle School (85 Jungni-Dongno, Daejeon, Republic of Korea)

(Former address) Department of Companion Animal and Animal Resources Science, Joongbu University, Kumsan, ChungchongNam-do, Republic of Korea (ROK)

*Corresponding Author: Sangdeog Augustin Kim

Jungni Middle School (85 Jungni-Dongno, Daejeon, Republic of Korea)

(Former address) Department of Companion Animal and Animal Resources Science, Joongbu University, Kumsan, ChungchongNamdo, Republic of Korea (ROK)

Article History

Received: 02.09.2024 Accepted: 07.10.2024 Published: 11.10.2024

Keywords: My Husband! Let's Turn Round (Dolza!) and then, Let's Dance (Tchum-Tcheo-Seo) Together! (Tcheonzamun 017th-032nd).

Introduction

French Missionary Dallet (1874) expressed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n his book.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s called in Korea as Tcheonzamun (Han, 1583). It is considered that Tcheonzamun showed the unhappy state between the husband and the wife (Kim, 2023). How is the couple of the husband and the wife in their lives? Why is some couple so happy? Why is other couple not happy? What is the reason of their happiness? And what is the main reason of their unhappiness? Is there any clear solution for this pitiful condition of unhappy couple? It seems the main theme of Tcheonzamun (Park *et al.*, 2021; Kim, 2023).

MATERIALS AND METHODS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s called as Tcheonzamun in Korea (Han, 1583). It is considered that sixteen continuous letters compose a poem on Tcheonzamun (Park *et al.*, 2021; Kim, 2023). There are several methods for Tcheonzamun poem. The first method is through Korean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s on Tcheonzamun (Kim, 2023). The second one is through the meaning of Chinese character (Park *et al.*, 2021). The first method was utilized at the present work of translation (Park *et al.*, 2021). The range of this work is (Tcheonzamun 017th-032nd).

Copyright © 2024 The Author(s):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4.0 International License (CC BY-NC 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for non-commercial use provided the original author and source are credited.

RESULTS AND DISCUSSION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s called in Korea as Tcheonzamun (Han, 1583). This is the work of translation of Tcheonzamun poem (Tcheonzamun 017th-032nd). The title of this study is 'My husband! Let's turn round (Dolza!) and then, let's dance (Tchum-tcheo-seo) together! (Tcheonzamun 017th-032nd)'

<Number in Tcheonzamun. Chinese character (Pronunciation shown in Korean language on English alphabet).</p>
"Modified phrase in Korean alphabet." "Modified phrase in English alphabet">

017-020 寒(Han) 來(Lae) 暑(Seo) 往(Wang). 할래? 어서와! Hal-lae? Eoseo-wa!

My husband! Do you want to do (Hal-lae?) this pleasant thing with me (your wife)? Come to me now as rapid as you can! (Eoseo-wa!)

021-024 秋(Tchu) 收(Su) 冬(Dong) 藏(Zang). 춤춰서 돌자! Tchum-tcheo-seo Dolza! My husband! Let's turn round (Dolza!) and then, let's dance (Tchum-tcheo-seo) together!

025-028 閏(Yun) 餘(Yeo) 成(Seong) 歲(Se). 물러 서세! Mul-leo Seo-se!

But my husband! You say to yourself like this! "Come back now! (Mul-leo Seo-se!) It is not interesting for me!"

029-032 律(Yul) 呂(Yeo) 調(Zo) 陽(Yang). 울려줘야! Ul-lyeo Zwo-ya!

My husband! You think like this. "I do not like the peacefulness! I like better the fighting than the peace! And I want to be superior to my wife! I would rather make (Zwo-ya!) my wife to cry (Ul-lyeo)! It is more interesting for me!"

The next is the original writing of this research. It was written in Korean language on 28 September 2024.

512. "춤춰서 돌자!".....

처음 쓰기 시작한 날: 2024년 8월 9일. 살고 싶어 정말? 마태오 복음. (원문: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우리 현희랑 아오스딩의 주님이신 예수님 아멘 아멘! 현희와 저에게 신혼 여든 셋째 날 주셨구만요 아멘 고맙쏘잉 고맙당께라우! 예수님 오랫만에 배가 고파요. 엊저녁 우리 소화가 해준 냉면, 꽃게탕 잘 먹었는데요. 루이보스 차 덕분일까요 주님 아멘 고마와라우! '내 욕심 챙기지 않는다는 것', '남의 마음을 살펴본다는 것'요. 우리 둘의 주님 아멘 우리 현희가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현희를 좋아하는 것이고요! 우리 둘의 예수님 아멘! 예수님 우리 두 사람의 주님! 우리 현희가 가져왔겠지요 독일제 면역약 덕분일까요 아멘! 예수님 우리 둘의 예수님 아멘! 우리 로사를 구해주셔서 ('마다가스카르' 에서요) 고맙쏘잉 아멘 우리 현희랑 아오스딩의 주님 아멘! 고맙쏘잉! 우리 둘의 예수님 주님 아멘 고맙쏘잉! 2024년 8월 9일 새벽. 물고기 입을 열어봐봐! 마태오 복음. (원문: 고기를 잡아 입을 열어 보아라.) 우리 현희랑 아오스딩의 주님 아멘 고맙쏘잉! 저희 두 사람에게 신혼 여든 여섯 날 주셨구만이라우 주님 아멘 고맙쏘잉! 어제 미사 시간에 쟈크 신부님 "힘든 때 어려운 때가 있지요?" 라고요. 맥 273은 엄니가 우리 현희를 칭찬하는 글입니다. "써봐야 뭔 소용이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님께서 "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주님 아멘 아멘! 우리 식구 열 한 명 모임이 우리 현희를 힘나게 해준다고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짝꿍을 뜻밖의 곳에서 구할 수 있다고요. 우리 현희랑 아오스딩의 주님 아멘 고맙쏘잉! 우리 현희랑 아오스딩의 주님 아멘 고맙쏘잉! 뽈 성당 바베큐도요 주님 아멘 고맙쏘잉 주님 아멘! 2024년 8월 12일 새벽. 선생님 따랐어라우! 마태오 복음.(원문: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우리 현희랑 아오스딩의 예수님 우리 둘의 주님 아멘 고맙쏘잉! 저희에게 신혼 아흔 네 날 주셨구만요. 우리 현희 말 이제 알아들어요. 제가 "정서 이 정서 불안에서 제가 벗어나게 도와주소서 주님 아멘! 불안"입니다. 사람들에게 화 안낼께요 세린이에게부터요! 우리집 아이에게 제가 "전화기 안 가지고 다녔냐!" 라고 몇 번 말했다는 것 알았어요. 아멘 예수님! 어제 맥 274 논문 보냅니다 우리 둘의 주님 덕분에요. 오늘 맥 275 마칩니다. 시(詩) 한 수가 남았지만 그건 다음에 할께요. 주님 아멘 카톡 조심할께요 주님 아멘 고맙쏘잉! 현희야 오빠 도와줘! 2024년 8월 20일 새벽. 우리 소화 글, 우리 현희씨 프랑스 성서 이야기, 영어 선생님 이야기 모두 감동에 찬 글이어서 기뻤어요 우리 현희랑 아오스딩의 예수님! 2024년 8월 20일 새벽. 예수님 우리 현희가요 "상황에 안 맞는 말 하지 말아요 말을 안 하면 돼요!" 아멘 주님! 제가 '정서 불안'임을 받아드려요. 우리 현희에게 말합니다, "도와줘!" 라고요. 그리고요 예수님 전립선암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너무 너무 기뻐라우! 로사 집에서요 20241 년 8월 20일. 아멘 우리 둘의 예수님 주님 아멘 고맙쏘잉! 맥 275 라고 씁니다 천자문 책에요. 로사네 집에서요. 2024년 8월 20일. 아멘 고맙쏘잉! 현희랑 아오스딩의 주님이시여! 학교 (중리중) 왔어라우 우리 현희랑 아오스딩의 주님 아멘! 2024 년 8월 23일 새벽. 예수님 광주 가고 있어라우 아멘! 우리 현희 49 제 이야기 꺼냈어라우 주님 아멘! 2024 년 8월 24일 새벽. 엄니 아부지를 떠나서 응! 에페소서. (원문: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우리 현희랑 아오스딩의 예수님 아멘 고맙쏘잉! 저희에게 신혼 아흔 아홉 날 주셨구만이라우! 어제 엄니 아부지 산소 잘 다녀왔쏘잉 주님 아멘 고마와라우 고맙당께라우! 2024년 8월 25일 새벽. 이 놈아 눈 먼 바리사이 놈아! 마태오 복음. (원문: 눈 먼 바리사이야!) 우리 현희랑 아오스딩의 예수님 아멘! 저희에게 혼인 백 첫날 주셨구만요 예수님 주님 아멘 고마와라우! 어제 엄니 미사 예물 드렸어라우 이병돌 요셉 신부님께요 아멘 고맙쏘잉 고맙당께라우! 2024년 8월 27일 새벽. 예수님 아멘 서약미사 입회식 고맙쏘잉! "할래 서방!" (017-020 寒來暑往.) "주슈! ---" (021-024 秋收冬藏.) 아멘 우리 둘의 예수님 우리 아들이랑 우리 현희씨랑 긴 통화가 있었나이다 우리 둘의 예수님 주님 아멘 고마와라우! 2024년 9월 22일. 우리 둘의 예수님 현희랑 아오스딩의 주님 아멘 아멘! "울어 줘야"입니다. (029-032 律呂調陽.) 아멘 우리 둘의 주님 아멘 고맙습니다! 학교에서요, 2024년 9월 25일. 예수님 주님 "울려줘야!" (029-032 律呂調陽.)입니다 아멘! 2024년 9월 25일. 우리 둘의 예수님 아멘 고마와라우! "할래? 어서와!"주셨구만요 현희랑 아오스딩의 주님 아멘 고맙쏘잉! (017-020 寒來暑往.) 2024년 9월 27일. 우리 현희랑 아오스딩의 예수님 주님 아멘 고맙쏘잉! 이 해석 주셨어라우! "취서 돌자!" (021-024 秋收冬藏.) 그리고요 "---서세!"입니다. (025-028 閏餘成歲.) 우리 둘의 하느님 주님 아멘 고맙쏘잉 고맙당께라우! 2024년 9월 27일 학교에서요. 예수님 주님 아멘 고맙쏘잉! 우리 현희랑 아오스딩의 주님 아멘 고맙구만이라우! "물러 서세!"이구만요. (025-028 閏餘成歲.) 아하! 고마와라우 우리 둘의 예수님 주님 아멘 고맙모아! 토마토 사러 갔다 오면서요 주님께서 이 해석 주셔서 잘 받습니다 우리 둘의 주님 아멘 고마와라우 고맙당께라우! 2024년 9월 27일 학교(중리중)에서요. 예수님 우리 둘의 하느님 "춤취서 돌자!" 로요 주님 아멘 고맙쏘잉! (021-024 秋收冬藏.) 목동성당에서요. 우리 현희랑 아오스딩의 주님 아멘 아멘! 아멘 고맙구만요! 2024년 9월 28일.

The theme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021-024 秋(Tchu) 收(Su) 冬(Dong) 藏(Zang). 춤춰서 돌자! Tchumtcheo-seo Dolza! My husband! Let's turn round (Dolza!) and then, let's dance (Tchum-tcheo-seo) together!

Our Lord! You have guided two of us, Hyeonhi and Augustin, and our five children for this work! Thank you so much, amen!

ACKNOWLEDGEMENTS

The authors thank Mr Ilsoo Joseph Kim and Mrs Bohwa Maria Kim, Mr Yeonghag Park and Mrs Hilye Sarah Kim, Father Yang_eob Thomas Tchoi and Father Jean Blanc and Father Hifumi Iwazaki and Father Xavier Ha and Father Thomas Gil and Father Ikseon Gregorio Choi and Father Kyu-sik Cho, Mrs Tamako Hayashi and Mr Yoshihiro Hayashi, Professor Francine Tenaillon and Professor Nicolas Tenaillon, Professor Tae Song Koh and his wife, Professor Sook Ja Nam, Mrs Sookja Martha Min, Mrs Kisoon Cecile Song, Mrs Toshie Nakano, Father Hanyoung Marc Lee and Father Wonhwa Joseph Lee and the member of Daejeon Nae-dong Catholic Church, Father StephenMary Hyunhong Kim and Father Byungdul Joseph Lee and the member of Daejeon Ludovich of Ordo Franciscanus Saecularis, Professor Byoung Hoon Park and the student of Joongbu University, the Principal Seo Gyoung Jeon and Vice-Principal O Young Kwon and Professor Young-ok MariaMichaela Hwang and Mrs Bu Hyo Lee and the members of Jungni Middle School, Okja and Hwansik and Seonju-Pilseong couple and Jieun Agatha and Jiah-Sangmin couple and Rosa-Alain couple and Sohwa Therese and Céline and Aïlyne. The authors thank the Lord Jesus Christ so much!

REFERENCES

- Dallet, C. H. (1874). Histoire de l'Eglise de Corée (History of Korean Catholic Church). Victor Palme. Paris. France. 11-99.
- Han, S. B. (1583). Hanseogbong Tcheonzamun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written by Hanseogbong). (edited by Yeong Bae Zeong in 1984 on Songwon Publishing Company in Seoul. 1-136.):
- Kim, S. A. (2023). My Darling Hyeonhi, I am not ashamed of hearing your words! (Tcheonzamun 769th-784th). *South Asian Res J Human Soc Sci*, 5(5), 202-205.
- Park, H. R., Kim, R., Hamon, A., Kim, S. T., & Kim, S. A. (2021). Augustin often reminds Mrs Hilye Sarah Kim his mother in-law (The Second Translation of Tcheonzamun 449th -464th). *South Asian Res J Human Soc Sci*, 3(5), 340-341.